

<137> "왜곡 편향의 근현대사 바로잡아야!"

8 미디어빌 | ㉠ 승인 2022.12.23 11:15

前ICC소장 송상현 선생, 호소력 있는 獅子吼에 뭉클!
어린 청소년과 청장년 세대에게 송 선생 강연 들려줘야
피히테의 '독일 국민에게 고함'을 듣는 듯한 명강에 박수

송상현 선생의 이틀 전 강연을 나는 유튜브로 들었다.

문득 '법고창신(法古創新)'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18세기의 선각 연합 박지원 선생이 설파한 말이다.

'옛것을 본받아 새것을 창조한다'는 뜻으로 새기련다.

그러니, 옛것을 익히고 나아가 새것을 안다는 '온고지신(溫故知新)'보다 더 적극적이다.

'온고지신'은 어찌 보면 옛것을 알아야 새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앎, 즉 인식론 차원이다.

반면 법고창신은 옛것을 바탕으로 새것을 창조한다는 측면에서 실천의 문제라 할 것이다.

박지원은 조선 후기에 꽃핀 진경(眞景)문화의 절정에서 일찌감치 조선의 쇠퇴를 예상했다.

새로운 시대를 실사구시의 자세로 준비한 선각답게 문장론으로 법고창신을 제창한 것이다.

20일 매헌 윤봉길기념관에서 심당 송상현은 기억에 남을 명강을 했다.



지난 20일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 대강당에서 특강 중인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 photo 최영훈

그의 강연 장면에서 매헌의 사즉생(死則生) 결의를 쓴 글이 자주 나온다.

'장부출가생불환(丈夫出家生不還)'은 사내가 집을 떠나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는 뜻.

매헌 윤봉길의 '독립운동이란 목숨을 버릴 각오 없이는 안 된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다.

강연 주제는 '공정과 상식의 대한민국, 올바른 근현대사의 정립'이었다.

[공정과 상식TV]공정과 상식 제50차 포럼 제 2 부 : “공정과 ...



서울법대 명예교수로 ICC소장까지 역임해 국제정세에도 밝은 편이다.

정용상 '공정과상식포럼' 상임대표와 연이 깊어 출범 때 기조연설도 했다.

1년 7개월여 전의 기조강연 주제는 '국제질서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

심당은 연단에서 무거운 주제의 강연 전, 먼저 가볍게 운을 뗐다.

"진심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지사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 '머리라도 좀 깎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발을 하고 왔습니다."

강연 첫머리는 대한민국이 처한 총체적 아노미적 혼란상에 대한 통렬한 지적.

"군사독재와 권위주의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자마자 그 반작용이 과도했던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심지어는 대북관계에서조차 거의 아노미 수준의 혼란을 너무 오래 동안 겪고 있다."

정권을 잡은 운동권 좌파세력은 낮은 이데올로기에 파묻혀 상대를 제압의 대상으로만 여겼다.

그에 맞선 우파정부 세력 역시 너무 폐쇄적이고 휴머니즘이 없어 위기를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는 총체적 가치 혼란과 국기문란 그리고 이념에 따른 국민 분열과 양극화,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부패상을 온 국민들이 지금 처절하게 목격하고 있다고 했다.

"너무 오래 떼쓰면서 원칙을 짓밟는 행태가 일반화됐다"고 심당은 개탄했다.

그의 목소리가 차츰 높아지기 시작했다.

"도덕과 정의, 그리고 공정과 상식이 실종된 사회에서 살고 있지 않은지 싶다."

법치사회가 되면 국민이 준수해야 할 법정 기준, 요건, 절차가 분명해지고 담당공무원의 재량이 줄어들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오히려 강화된다.

국민 다수에게 더욱 유리하고 편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핵심을 짚었다.

심당은 역사바로세우기를 주창하면서 차츰 사자후로 목소리가 커졌다.

"...불가능한 중도 노선을 지향한다며 당시 북한을 열심히 들락날락하던 한 정치인이 40년 후 자기 손으로 쓴 회고록에서 '최측근이 북한 간첩이었음을 당시 알았다더라면 기회주의적 중간 노선을 취하지 아니했을 것'이라고 후회하는 것을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국제정세나 팩트에 무지했던 해방 공간의 반성적 성찰도 짚었다.

"반탁론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 신탁통치 반대를 위한 대책을 논할 때 모두들 짚신 죽창을 들고라도 미 군정과 싸워 이놈들을 쫓아내고 즉각 독립을 해야 한다는 가당치도 않은 비현실적 감정적 주장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는 동아일보 사장을 지낸 조부 고하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회의에서 신탁 통치를 결정했다는 모스크바 3상회의 발표문을 읽어본 유일한 참석자인 고하 송진우가 정확한 사실을 전하면서 '좀 더 신중하게 감정을 억누르고 반탁할 것'을 주장했더니 바로 찬탁 인사로 몰렸고, 그 다음날 암살되고 말았습니다."



고하 송진우 photo 나무위키

고하의 암살을 비롯한 설산 장덕수 등 해방 당시의 암살 사건들은 거의 다 그대로 묻혀버렸다.



설산 장덕수 photo 나무위키

"격동의 해방정국에서 붓물 터지듯한 복수심과 망국에 대한 추궁의 심리 속에 모두가 애국자처럼 외치는 동안, 이미 우리의 이성은 문제 해결의 도구가 못 되었습니다."

우남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 과정도 재조명을 주장했다.

"남북이 각각 정부를 수립할 때 남한의 많은 학자들이 북한 김일성은 항일 투쟁 경력이 있는 젊은 지도자로서 정통성 있게 나라를 건국했으나 남쪽은 친일파에 둘러싸인 이승만이 개인의 정권욕에 따라 정부를 수립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국 정통성을 부인하면서 소련 앞잡이 김일성과 북한을 좌파진보 쪽에서 미화하는 걸 통탄한 것이다.

1948년 제 정치 사회세력이 갈등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건국에 성공한 바 있다고 역설했다.

"공산 독재를 위해 역사를 왜곡한 원조는 김일성, 본명 김성주 그자였음을 잊으면 안됩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을 건국한 공이 있는 애국지사들은 교과서에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판이다.

왜곡된 교과서와 역사교육의 결과로 해방정국에서 이성적 세력들은 망각의 늪으로 묻혀버렸다.

"보세요, 불과 70여 년 전이고 우리 생전 일인데 너무도 왜곡이 심합니다.

이러한 왜곡의 역사는 여러 해 동안 초중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여과 없이 전달되었고 교과서에 실려 지금의 젊은 세대는 올바른 한국의 최근세사를 전혀 모릅니다."

편향된 교과서를 수정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삽입하자는 제안마저 '1191명의 역사 교사들에 의해서 거부당한 것을 아시지 않느냐?'고 그는 반문하기도 했다.

"일부 지식인들은 선조들이 피땀 흘려 세운 대한민국을 의심하거나 비판만 하고 한국 사회를 난도질하는 지적 전투성으로 푹푹 무장돼 있다"며 통탄했다.

이들에게선 진실을 존중하는 지적 정직성도, 공동체 사랑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국가 발전이나 국민 행복에 대한 의식도 아주 결여되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역사왜곡 교육의 무서운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인 심당의 표정은 결연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다"면서 한때 강단을 휩쓴 남침론을 매섭게 해부했다.

"공산당이 남침한 것이 한국동란이거늘, 여기 증인들도 계신데, 한때 남한의 북침설을 주장하는 학자라는 자들이 득세하더니, 구소련이 붕괴한 이후에 공개된 많은 기밀문서를 보고 나서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었는지 북침설은 쏙 들어갔습니다."

그는 "이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라고 되물었다.

"한국을 연구한다는 어느 미국 학자(브루스 커밍스)의 영향을 받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이! 그까짓 거 남침이면 어떻게 북침이면 어떠냐? 그거를 분명히 밝히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얼버무리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심당은 "한국동란에서 흘린 유엔군과 우리 젊은이들의 피를 생각하면 사상적으로나 이념적으로 것처럼 흐리멍덩하게 넘어갈 수는 없다"고 날을 세웠다.

지금 진행되는 체제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만 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를 올곧고 정확하게 바로잡아야 후세에게 떳떳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역사는 새로 써야 합니다. 역사는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5년 전 촛불 집회가 교과서에 두 페이지로 사진까지 실리고 이를 21세기의 민주혁명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는 "선조들이 생취해 물려주신 이 귀중한 나라의 역사가 왜곡 망각 멸실되는 것을 더 늦기 전에 꼭 바로 잡아 교과서에다 수록해야 한다"고 웅변을 토했다.

"광화문에서 젊은 남녀가 월드컵 축구 선수를 응원할 때 외치는 그 순수하고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의 역사를 바로잡읍시다! 이것이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제창하는 이유입니다."

그의 강연을 유튜브로 보면서 나는 피히테의 '독일 국민에게 고함'을 떠올렸다.

그도 강연 중 피히테를 언급한 바 있다.



피히테 초상화 photo 최영훈

독일이 망한 것은 국가 혼이 없기 때문이라고 피히테는 탄식을 한 바 있다.

"그런데 국가 혼은 누가 길러줍니까? 바로 올바른 역사가 길러주는 겁니다."

맞는 말이다.

역사를 모르고 어떻게 나라의 방향을 정하고 민족의 앞날을 설계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의 발전과 미래 계승을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관의 정립이 꼭 필요할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선 시점에 미래지향의 역사바로잡기 캠페인이 특히 필요하다.

젊은 세대의 뇌리에 왜곡과 편향으로 세뇌된 역사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옛것에 지나치게 매달리면 낡아지고 때가 묻을 염려가 있다.

새것을 창조하는 데만 매달리면 근거가 없어 위험하다 했다.

연암은 법고(法古)에만 치중하면 고루해지고, 창신(創新)에만 힘 쏟으면 근본이 없어짐을 경계했다.

옛것을 본받는 일과 새것 창조는 맞물리면서 균형을 이뤄야 실패하지 않는다.

한쪽으로 굽은 걸 바로 잡으려면 반대쪽으로 있는 힘을 다해 당겨야만 한다.

탈무드에도 그런 말이 나온다. 지금 최근세사, 현대사의 좌편향 왜곡은 너무도 심각하다.

그러니, 당분간 역사 바로세우기 캠페인을 하면서 오른쪽으로 확 당길 필요가 있을 거다.

친일파들이 해방 후에도 심판을 덜 받고 득세를 한 사실도 분명하다.

이른바 친일잔재 청산에 실패했다는 지적은 경청할 만하다.

기실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은 불우한 사람들이 매우 많다.

정부와 나라가 나서서 시급히 고쳐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친일의 경중이나 옥석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은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천도교와 불교 기독교를 엮어 2000만 조선민중이 한마음으로 3·1 운동에 나섰다.

그 후, 1926년의 6·10만세운동과 1929년 광주학생의거 등으로 거족적인 운동이 이어졌다.

엄혹한 일제하에서 이런 만세운동이 이어질 수 있었던 배경이 과연 무엇이였을까?

3·1 운동 선언문에 서명한 33인만 아니라 배후에서 누가 조직 지휘를 했는지 단디 봐야 한다.

3·1운동의 쾌거가 없었더라면 해외독립운동도, 무장투쟁이든 외교든, 싹을 내리기 힘들었다.

일제 탄압과 감시를 피해 자금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해외독립 운동도 움츠러들었을 거다.

국내에서 꺼져가는 민족정기를 꾸준히 살려내면서 광복 때까지 온갖 저항 끝에 모진 탄압을 이겨낸 국내 독립운동 그룹에 관한 전면적 재평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일제 탄압을 피하기 위해 국내파들은 관련 기록이나 문서를 남기기 힘들었다.

일제 고등계 형사를 의식해 증거를 없애버렸거나 멸실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역대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하긴커녕 역사를 좌편향으로 왜곡한 좌파세력의 눈치나 봤다.

고하 송진우나 인촌 김성수 등 국내파에 대한 지나치게 인색한 평가에 혀를 내두를 정도다.

그에 비해 지난 정부를 비롯한 진보좌파 정부 출범 후 좌파계열은 과대평가를 받았다.

이런 왜곡부터 균형 있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앞서 심당은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위한 국민포럼은 결국 척박하고 흉년이 든 한국정치에 금비 대신 퇴비를 주려고 애쓰는 쉽지 않은 사명을 열심히 수행해오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용상 대표의 일관된 실천을 치하했다.

'공정과상식국민포럼'은 역사바로세우기 캠페인의 실천에 나서라!

"역사를 왜곡하는 책동은 한국 지성사의 기초를 파괴하는 것이다."

송상현 선생의 맺는말이 새삼 심금을 울린다.

그가 강연 도중에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라고 한탄했다.

그때 100여 청중들은 그에게 박수갈채를 보냈다.

청중들은 대체로 50대 말이 넘는, 평균 연령이 60중반을 넘을 거다.

젊은 청장년과 어린 학생들에게 시급히 팩트와 진실을 가르쳐야 한다.

이만 총총.(계속)

#뱀발...前ICC소장 송상현 약전

1941년생. 당호는 심당.

광복 후 한민당 창당과 일제 때 동아일보 사장을 지낸 고하(古下) 송진우 선생의 손자.

고려대 총장과 국무총리를 역임한 고 김상협 선생의 사위다.

친부인 송영수의 무녀독남으로 태어나 슬하에 자식이 없던 고하에게 입양됐다.

고하의 조카인 송영수는 동아일보 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심당은 경기고 서울 법대를 나왔다. 재학 중 1962년 행정고시, 이듬해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졸업 직후 총무처 사무관에 발령받아 잠시 근무하다가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쳤다.

서울대에서 석사를 한 뒤 미국 코넬대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S.J.D.)를 받았다.

1972년부터 2007년까지 35년간 모교인 서울법대에서 상법과 민사소송법을 강의했다. 1996년부터 1998년까지는 법대 학장을 역임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가 독립기구로 창설된 이듬해인 2003년 85개 회원국 중 65개국의 지지를 받아 초대 재판관의 일원으로 취임했다.

2009년에는 국제형사재판소 2대 재판소장에 선임됐다.



ICC소장 재직 때 사진 photo 뉴스1

한국인으로서 당당히 국제사법기구의 수장에 처음 올랐다.

2012년 연임을 거쳐 2015년 3월에 소장 직을 퇴임했다.

국민훈장 모란장과 무궁화장(2011년)을 비롯해 다수의 훈, 포장과 명예직을 수여받았다.

제자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문환 전 국민대 총장, 김현 전 변협회장 등이 있다.

2012년 이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회장을 맡았으며, 2015년 국가인권위 정책자문위원장에 선임된 바 있다.

2020년 말, '고독한 도전, 정의의 길을 열다'라는 회고록을 출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석사 논문(민사소송법) 지도교수로 연을 맺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례도 했다.

ICC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심판하는 최초의 상설 전쟁범죄재판소다.

2002년 7월 1일 발족됐으며 본부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다.

18인의 재판관을 비롯해 소추부 사무국으로 구성되며, 우리는 2003년 2월 가입했다.

냉전이 막을 내린 1990년대 르완다와 보스니아에서 인종학살 사태가 일어난 게 발족 계기였다.

1998년에 마련된 로마조약에 근거해 발족한 국제형사재판소는 해당 국가가 전쟁범죄에 대한 재판을 거부하거나 재판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재판절차에 들어간다.

60개국이 로마규정에 비준, 상설재판소로 활동을 시작했다.

2002년 7월 이전 범죄는 다룰 수 없도록 '불소급 원칙'이 적용된다.

최고 형량은 징역 30년(극단적 범죄자에게는 종신형도 가능)까지.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은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평화유지군과 해외 미군의 사기 문제를 들어 가입을 미룬다.



필자 최영훈 前동아일보 편집국장 photo 최영훈



